

한옥마을 식품위생 위반 5곳 적발

전주시, 6명으로 구성 173곳 대상 특별 지도점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 5곳이 적발됐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철 식품위생감독을 위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식중독예방과 식품위생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3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달 11일부터 한옥마을에 위치한 식품위생업소 17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또, 칼

과 도마, 컵 등 식품조리기구 30건을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점검 결과, 무신고 업소 1곳과 영업장 무단확장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곳, 조리기구 불청결 및 위생보 미착용 2곳 등 모두 5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또, 수거 검사한 식품조리기구에 대해서도 부적합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2차 조사대상자 267명 선별

완산구(구청장 최락휘) 생활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차 조사대상자 267명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대상자 267명 중 138명에 대한 확인을 마쳐 52%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2차 조사대상자는 지난 1차 발굴 시 경험을 반영해 보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선별, 실제 발굴과 지원 성과도 1차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빠른 조사를 통해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는 23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정형모 NH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장, 이화균 금융공사 전북지사장, 강선규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장, 천기태 은누리연합내과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폐지수거 어르신 생계·안전·건강 지원

10대 여학생 가출 유인해 성관계 20대 항소심서 집유

가출을 고민하는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역 1년6월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김씨의 정보를 2년간 공개, 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밤 10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채팅으로 알게 된 A(14)양에게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줄게"고 피아내 가출을 하게 한 뒤 다음달 17일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광주 북구 상촌로 자신의 원룸에서 A양과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금융기관·병원 등 민간기관들과 후원 협약체결

전주시가 폐지를 수거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생계형 폐지수거노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23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형모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장, 이화균 한국금융공사전북지사장, 강선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장, 천기태 은누리연합내과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는 폐지를 수거하면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230명(완산구 125명, 덕진구 105명)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로 새벽시간에 폐지를 수거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들 어르신들은 주로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으며, 소일거리 또는 건강을 위해서, 자유로움 등 다양한 이유로 폐지수거일에 종사하고 있다.

전주시가 폐지수거 노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는 노인일자리 등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처럼 시간에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폐지수거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겠다는 노인도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통해 폐지를 수거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생계형 폐지수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와 한국금융공사전북지사, 은누리내과 등 3개 기관은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전주에서 우선 선정한 17세대에 매월 10만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게 되며, 이후 협의를 거쳐 지원세대와 지원규모를 늘

릴 계획이다. 또한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사에서는 건강이 취약한 폐지수거 어르신 40명에게 MRI 등 정밀검사를 동반한 건강검진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후원기관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면서 더 많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눈에 잘 될 수 있도록 형광조끼나 모자 등 안전용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어르신들의 폐지수집은 새벽부터 시작돼 노동강도가 세고 심각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공적영역이 개입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여러 주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생활 속 문화체험 프로젝트 추진

주요시설 무료·할인 혜택 등

전주시가 '5월 문화가 있는 날(25일)'을 맞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속 문화누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올해 '문화가 있는 날'을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미술협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 추진과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문화시설들의 각종 할인혜택 제공, 야간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되는

'문화가 있는 날'은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영화관과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5월 문화가 있는 날에도 전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은 그림속 캐릭터를 수목채색 기법으로 그리는 '우리그림 함께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흥아트미술관은 '에듀케이터의 해설이 있는 미술관'과 '한지등 만들기' 공예체험을 실시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7억원 지원

전주시가 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7억 원으로, 융자금 지원한도는 농업인 2,000만원 이하, 농업법인 3,000만원 이하이다. 융자조건은 연 이율 3%에 상환기

간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 상환 중인가, 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세대, 금융부실거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재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병원 이사장 구속

전북경찰, 도매업체·제약사 29곳으로 수사 확대

경찰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18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전주 J병원 이사장이 구속한데 이어 리베이트를 건넨 도매업체와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주 J병원 이사장 A(60)씨와 도매업체 대표 B(4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사 29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이사장 A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씨 등 6개 도매업체에서 1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주 대형병원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병원과 도매업체 6곳을 압수수색, 리베이트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병원 이사장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을 함께 구속된 B씨를

'월급사장'으로 내세우며 운영하면서 제약회사와 '단기계약'을 맺어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시 도매업체에서 병원에 재판매가 되고 납품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통상 제약사와 도매업체, 도매업체와 병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데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직영으로 운영 제약사와 병원이 할인율을 담합하면, 제약사에서 할인된 가격에 받은 의약품을 다시 병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에 따라 리베이트 수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도매업체가 챙긴 리베이트 수익은 허위로 고용서류를 작성, 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속여 A씨의 손으로 흘러들어갔다. 현행 약사법은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은 반드시 의약품도매상을 거쳐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과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할인된 값에 의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29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진수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채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채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